

‘연임 성공’ 김지완 경쟁력 通했다... ‘그로우 2023’ 박차

(BNK금융그룹 회장)

(중장기 경영계획)

BNK 20일 주총, 연임 확정

2017년 취임 후 경영실적 안정적 비은행·비이자 수익 확대 목표 銀 계열사 부진 만회, 수익원 다변화



김지완 BNK금융그룹 회장

김지완 BNK금융그룹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김 회장은 연속성과 안정적 경영을 바탕으로 그룹 중장기 경영계획인 ‘그로우(GROW) 2023’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22일 BNK금융그룹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김지완 회장의 연임을 확정했다. BNK금융 이사회는 “취임이후 그룹 4대 핵심부문 경쟁력 강화를 통한 비은행과 비이자 부문 이익이 모두 증가했다”며 “조직의 연속성과 안정적인 경영을 바탕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선 김 회장의 연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김 회장은 2017년 취임한 후 안정적인 경영실적을 냈다. 지난해 BNK금융의 당기순이익은 5622억원으로 2018년보다 12% 증가했다. 수익성 지표인 총자산이익률(ROA)과 자기자본

이익률(ROE)도 각각 0.03%포인트, 0.29%포인트 상승한 0.58%와 7.04%로 개선됐다.

◆‘GROW 2023’ 속도...글로벌 확대

이에 따라 김 회장은 그룹 중장기 경영계획 달성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해 글로벌 스탠다드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해 ‘GROW 2023’을 발표했다. ‘GROW 2023’은 비은행·비이자수익을 확대하고 건전성을 관리해 오는 2023년까지 ▲그룹 ROE(자기자본이익률) 10% ▲고객중심의 디지털 최적화 ▲글로벌 부문 이익 5% 달성 ▲비은행 수익비중 30% 달성을 목표로 한다.

우선 김 회장은 BNK투자증권과 자산운용을 강화해 BNK부산은행과 경



남은행 등 은행 계열사의 부진을 만회하고 수익원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BNK투자증권과 자산운용의 순이익은 210억원과 25억원이다. BNK투자증권은 전년(114억원)과 비교해 2배 가량 증가했고, BNK자산운용은 흑자 전환했다. 시장금리 하락으로 핵심 수익원이던 은행의 이자이익이 감소하는 부분을 비은행 비이자 수익으로 최소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글로벌 진출도 확대한다. BNK금융은 현지상황에 맞는 지점 개설을 위해 소매금융과 디지털 금융 투 트랙 전략을 추진한다. 현재 BNK금융은 부산은행과 캐피탈 등을 중심으로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 아세안 4개국에 진출해 있다. 중국, 카자흐스탄, 인

도를 합치면 모두 7개국에 현지법인이나 영업점 및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부산은행의 중국 내 두 번째 점포인 난징지점을 개설하고 중앙아시아에도 거점을 마련할 예정이다.

◆리스크관리, 추가 안정 주요 과제로

다만 김 회장이 풀어야 과제도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당면 과제로는 리스크 관리와 추가 안정이 꼽힌다. 침체된 지역경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확산하면서 공장 가동 중단, 소비 위축 등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지역에 기반을 두고 영업하는 지방은행들도 악영향을 받아 대출 부실과 연체율 상승 등 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중소기업·지역업자 대출규모는 각각 36조4400억원, 24조700억원으로, 연체율은 0.43%, 0.69%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은행의 신규자금 공급,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또 지역에서도 창업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투자금융(CIB)도 확대한다. 리스크 관리에 앞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리스크가 감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석이다.

추가안정과 주주가치 제고도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자사주를 사들이며 추가 부양에 힘쓰는 모습이다. 지난 6일 김 회장은 자사주 2만 1800주를 장내 매수해 주주가치 제고에 나섰다. BNK금융은 한국투자증권과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70억원 규모의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주식을 매입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며 “안정된 리더십을 바탕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는 등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손태승 ‘DLF 중징계’ 정지... 연임 ‘청신호’ KB저축銀, 중금리대출 판매로 ‘순항중’

(우리금융그룹 회장)

판매 직접 관여 안해 행정소송 25일 주총서 연임안 표결 진행 과점주주들, 손 회장 공식 지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연임에 청신호가 켜졌다. 손 회장이 서울행정법원에 낸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문책경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우리금융은 오는 25일 주주총회를 열고 손 회장에 대한 연임안을 안전에 올릴 예정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지난 20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 징계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는 징계의 적법성을 더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효력정지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앞서 금융원은 우리은행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불완전판매한 배경에는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손 회장에 게 문책경고를 내렸다. 금융회사 임원이 문책경고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3년간 제한된다. 이에 대해 손

회장은 상품판매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며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에 금감원의 중징계 정지 가처분신청과 징계효력 정지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출했다.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우리금융은 예정대로 오는 25일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의 연임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한다.

다만 업계안팎에서는 손 회장의 연임이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주식의 약 29%를 점유한 과점주주들이 사외이사를 통해 손 회장을 공식 지지하고 있어서다. 우리사주 조합(6.4%)을 포함한 손 회장의 우호지분은 최소 35.4%다.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17.25%)와 국민연금(7.71%)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부결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나유리 기자

금융지주계 저축은행 중 2번째 순위 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서 많은 실적

KB저축은행은 KB금융지주의 저축은행 계열사로 금융지주계 저축은행으로서의 신한저축은행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순이익을 거두고 있다. 특히 지난해 자체적으로 내놓은 중금리 대출 판매가 호실적을 거두면서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뒀다.

실제 KB금융지주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KB저축은행 순이익은 163억원으로 전년동기(110억원) 대비 48.18%가 증가했다.

실적 개선 요인은 중금리 대출인 ‘KB착한대출’의 판매가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운 고객을 대상으로 KB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 판매가 대거 이뤄졌고 판매 규모가 전년 대비 2.5배나 증가했다. 무엇보다 금융지주계의 저축은행만 큼 시중은행 등 다른 계열사와의 연계영업이라는 큰 혜택을 톡톡히 봤다는 평가다. KB착한대출은 최저 5.9%의 금리와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다.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판매액이 1000억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실제 KB저축은행은 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에서 더 많은 실적을 올렸다. 같은 기간 KB저축은행의 대출금 운용 실적을 살펴보면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가계자금대출은 6975억원으로 전체 대출금에서 64.01%를 차지했다. 기업자금대출은 3507억원으로 32.19% 수준이다.

자산건전성 부문을 살펴보면 손실위험도 가중여신비율이 5.91%, 순고정이하 여신비율이 1.11% 수준으로 전년보다 소폭 비율을 낮췄다. 손실위험도 가중여신비율은 보유자산에서 발생 가능한 손실을 자체 자금으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단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2.15%로 전년(2.13%)보다 소폭 증가했고 연체대출비율 또한 3.05%로 전년(2.52%)보다 늘었다.

올해 KB저축은행은 비대면 대출 프로세스를 전면 자동화하는 시스템 개선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모바일 뱅킹에서 대출을 신청할 때 직원이 확인했던 업무들을 자동화시스템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동양생명 “우리아이 입학선물로 어린이보험”

입학하거나 새로운 학기를 시작한 자녀를 둔 부모라면 이맘때 가입하는 보험이 있다. 바로 어린이보험이다. 최근 인기가 많은 어린이보험 상품으로 동양생명의 ‘(무)수호천사내가만드는우리아이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22일 동양생명에 따르면 (무)수호천사내가만드는우리아이보험은 고객이 원하는 보장을 자유롭게 설계해 자녀에게 맞춤형 보장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보장내용과 금액이 확정돼 있는 기존의 상품과는 달리 가입자가 최대 25개의 세분화된 특약 급부를 활용해 원하는 보험료 수준에 맞춰 필요한 보장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피보험자 나이에 따라 1종(태아형)과 2종(어린이형)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1종(태아형)은 출산 전 가입가능한 상품으로 암, 소액암, 입원을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2종(어린이형)은 재해장해를 보장한다.

1종(태아형)에 가입해 암 또는 소액암으로 진단시 각각 1000만원의 진단비를 지급한다. 질병 및 재해로 입원하는 경우 1회당 120일 한도 내에서 첫날부터 매일 3만원의 입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2종(어린이형)은 재해로 인해 장해상태가 됐을 경우 주계약 가입금액 1000



만원 기준 1000만원에 해당 장해지급금을 곱해 산출된 금액으로 보장한다.

최대 25개의 다양한 특약을 통해 장해, 암 진단비, 뇌혈관·심혈관 질환, 중증 질환, 암 치료비, 입원·수술, 응급재해 등의 주요 담보를 하나의 보험으로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가능 나이는 0세부터 최대 15세까지다. 보험료 인상 없이 주계약과 특약 모두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김희주 기자 hj89@

“행수가 해냈다” KB 체크카드 20만장 돌파

KB국민카드가 지난달 선보인 ‘KB국민 행수 노리체카드’가 출시한지 약 한 달 만에 발급 20만장을 돌파했다.

국민카드는 KB국민 행수 노리체카드가 지난 19일까지 21만 1472장 발급됐다고 22일 밝혔다. 지난달 17일 출시 이후 26일 만이다.

이 카드는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행



수’를 카드 디자인에 담은 것으로 출시 전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많은 관심과 화제의 중심이 됐던 상품이다.

/김희주 기자